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04

생활불편

01 버스/택시 자격증 사진규격 통일

02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

03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버스/택시 자격증 사진규격 통일

요구하는 사진 크기가 각각 다른 민원 서식의 규격을 통일하여 불편 해소

추진부서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031-8008-6019

개선배경

- 현재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부분의 신분증에는 사진 규격이 동일하게 (가로 3.5cm, 세로 4.5cm) 정해져 있음
  - 국가에서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거나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받을 때 각기 다른 사진 규격을 요구하고 있어, 운수종사자가 매번 사진을 다시 찍거나, 새로 인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

〈 민원서류 현황 〉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휴대용)

사 진
2.5cm×3cm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개선내용

개선 전

자격증 재발급 등 각종 서류 제출 시 요구하는 사진의 크기가 각각 달라 다시 촬영하거나 인화해야만 함

개선 후

서식에 필요하지 않은 사진은 생략하고, 자격증 등에 들어가는 사진의 규격 통일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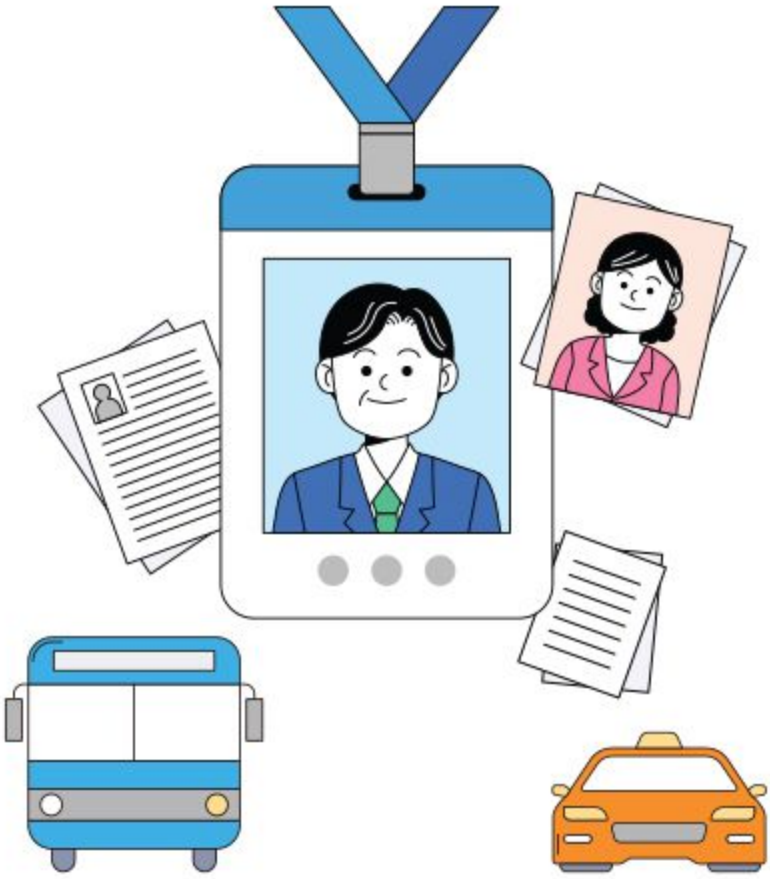
- 버스 및 택시와 관련된 인·허가, 운전자격 취득 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의 취득(보유)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의 사진 기준을 준용할 경우 시간이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음

추진과정

- ('24.5.7.)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신 및 검토
- ('24.5.16.)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버스 및 택시와 관련된 각종 인 · 허가, 운전자격 취득 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의 취득(보유)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증 사진 기준으로 각종 민원 서류 제출 시 요구하는 사진 크기 통일
- ('24.11.5.)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사진제출을 삭제하고, 사진의 규격을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에서 정하는 규격(가로 3.5cm, 세로 4.5cm)으로 변경

개선효과

- 전국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와 앞으로 운수업종에 종사하려는 국민이 매 신청마다 사진을 다시 찍거나, 요구하는 크기에 맞추어 새로 인화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

전국최초,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부서 | 시흥시 아동돌봄과 031-310-2702

개선배경

-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밀집 지역 확산 및 젊은 외국인 증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정주화로 **관내 이주 배경 아동 증대**
- **(현 제도의 문제점)** 현행법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 **(선도적 대응 필요)** 상위법 개정을 통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시흥시 내에서라도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필요 판단

사회적 문제점 대두

출생신고 안 한 '그림자 아동' 2154명

지난 8년간 경기도 601명 최다 감사원, 의료인 관리 실태 보니
마약류 치료보호 이력 있는 3명 정신질환 172명도 면허 유지

현행법상 제도적 한계

방치된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사각지대

자국민 아닌 시 출생신고 의무 제외
보건의료·의무교육 배제, 범죄 노출 가능성 ↑
아동 기본 권리 박탈
보편적 출생등록제 '촉구'

관내 시민 운동 확산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현행법상 문제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와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그림자 아이들 다수 존재**	시흥시에 살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여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교육 · 복지 · 보건 사업** 및 필요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 보호**

●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및 지원사업
  – (신청대상) 시흥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 출생 미등록 아동
  – (신청권자) 아동의 부 또는 모, 제3자 및 직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전문 상담콜
  – (처리절차) 신청 → 현장조사(필요시) → 발급(2주 이내) → 행정지원 연계
  – (지원내용) 시흥아동확인증 및 세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개선과정

시민주도 **주민 조례제정 운동에서 출발**

● 【'21.08.26.】'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취지 공표(시민연대 → 시흥시)
● 【'21.11.05.】출생확인증 발급 조례제정 청구 운동(시흥시장 적극적 지지)
● 【'21.11.30.】청구인명부 제출 ※총 서명 : 22,083명/ 유효 16,405명
● 【'21.12.23.】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시 → 시의회)

적극행정 **법제처의 소극적인 법적 해석 극복**

● 【'22.07.06.】시흥시의회, 주민조례 심의 및 각하 결정

■ 각하사유
출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 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4조에 반할 소지가 있어 부결됨.

● 【'23.01.18.】조례제정 추진 공동 합의(시 ⇄ 시민연대 ⇄ 시의회)
  – **(공감대 형성)** 조례 취지와 의미 및 출생의 공적 확인 필요성 재인식

- 【'23.05.30.】 수정조례(안) 도출 논의(시 ⇄ 시민연대 ⇄ 시의회)
  – 옴부즈퍼슨 및 법률 전문가 등 자문으로 **상위법 쟁점 사항 및 문제점 보완**
- 【'23.07.25.】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발의 및 제정
  – **(쟁점사항 보완)** 출생확인증 발급 조례 →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수연의원 대표 발의**

개선효과

-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현황 (2024. 11. 기준/ 41건)

총계 (명)	세대 유형별 현황(세대수)			자원 연계 현황(건)			
	내국인	다문화	외국인	확인증 발급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물품지원
41	1	7	33	41	15	41	22

- **(보편적 지원 확대)** 시흥시 관내에서 시흥시민과 동등한 혜택 보장
  –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 시 감면 및 할인 혜택 적용 ('23년)
  – 아동구강보건서비스 및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 ('24년)
  – 관내 도서관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 서비스 이용 ('24년)
  – 아이맘카페 및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24년)

- **(공적자원투입)** 관계부서 실무 협의를 통한 지원 가능 사업 지속 확대
  –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등 선(先) 지원 ('23년)
  –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포함 (관련 조례 개정 및 '24년 시행)

- **(대외성과)**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상 ('24년)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제정〉



〈'24.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Interview

조례 제정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지원하다

경기도 시흥시 아동돌봄과 이헌진 031-310-2702



출생(出生), 세상에 나오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삶의 여정을 떠나는 첫걸음을 뗍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이 내딛는 생애 첫 발자국을 세상과 연결하는 것.
2021년 시흥시민은 아동 인권의 시작 '출생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당연히 여겨왔던, 출생에 관한 공적 기록 즉 출생등록이 미등록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혼외 출생 아동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시흥시민들이 모여'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시작하였고, 시흥시민 22,083명의 참여를 끌어냈지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시흥시의회에서 아쉽게 각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흥시는 시민 대표단, 시흥시의회와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조례는 기존 출생등록 업무를 대신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사무로 볼 수 있다는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3년 8월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대표 발의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 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재량을 발휘하고자 노력한 선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출생 미등록 아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아동 확인증의 진정한 의미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23년 8월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1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굴되어 가정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들이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어떠한 탄생도 존재함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 인권 보호에 한 발 더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학교장이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한계 극복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통학용 노선버스 운행

추진부서 | 파주시 버스정책과 031-940-5782

개선배경



- 모든 학교에 기숙사를 짓고 그곳에서 공부하게 해주지 않을 거라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역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
- 현행 제도상 교육청 주관 통학버스 운행 불가하여 일선 학교의 예산과 행정력 부담 증가하여 통학버스 운행 차질로 통학불편 민원 다수 발생하였음
  -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통학버스 보조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일부 학교만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어, 한달 15만원 상당의 셔틀버스 비용을 학생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운정신도시 1지구('09년 최초입주)와 3지구('27년 이후 준공)의 도시 기반 격차로 인하여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대안으로 자가용자동차, 도보,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운정신도시 소재 청소년(중 ·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제공 및 교육 만족도 제고 목적
- 다각화되고 있는 여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출퇴근 전용 버스, 심야 버스 등과 같이 시대적 흐름에 순응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학원차(모집인원이 부족하면 운행불가) 학교별 통학버스(학교 여건에 따라 운행여부 결정) 대중교통(노선이 없거나 배차간격, 탑승경쟁 등 문제발생) 자가용자동차(부모님 아침운행 부담증가) 도보, 킥보드 등(안전문제, 날씨영향 등 불편증가)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버스로서 새로운 개념의 학생전용 교통수단

- **지자체 주도의 통학버스, 현행 한정면허 활용 전환점 마련**
  - 기존 한정면허는 관광지, 공항셔틀, 출퇴근, 심야버스 등으로만 활용 가능했으나, 학생전용으로 등하교 시간에만 운행하여 학교와 학교를 잇는 노선 운행
-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 조례 개정**
  - 지원대상, 예산지원 등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통학버스로는 최초로 기존 대중교통체계 편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학생 학부모 정책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파프리카 브랜딩 개발**
  - 쉽게 부르고 쉽게 기억하는 이름으로 홍보 및 정책 지속가능성 향상





추진과정

- 2023. 1. ~ 6. 경기도교육청 통학버스 사업 추진 난항(제도적 한계)
- 2023. 7. **파주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한정면허) 추진 방침**
- 2023. 11. 기존 대중교통체계 편입 위한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 협의
- 2023. 12.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개정안 발의(전체 의원 발의)**
- 2024. 1. 8. 파주시-道교육청, 파주시-㈜카카오 업무협약(MOU) 체결
- 2024. 1. 19. 국토교통부 1차 대면회의(한정면허 활용 불가, 사업무산위기)
- 2024. 2. 13. **국토교통부 2차 대면회의(파프리카 운행가능 결론, 사업추진탄력)**
- 2024. 2. 29.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개정안 통과
- 2024. 3. 4.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 개시 성공**
- 2024. 5. 20. 통학버스 최초 ㈜카카오 초정밀버스 서비스 시행

개선효과

- 오로지 학생만 탈 수 있으며 학교로 직행하는 노선버스로 출근하는 직장인과 함께 타지 않아 쾌적한 통학환경 마련
-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적용하였으며, 환승이 가능하여 학생 교통비 부담을 절감
- 노선버스와 동일하게 정류장마다 버스정보 안내(버스도착정보)를, 앱으로는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편의성 증대
-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 및 통학 문제에 당면한 지자체 등 학생 통학 환경 개선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





Interview

파프리카로 바꾸어나가는 우리의 일상

경기도 파주시 버스정책과 여기욱 031-940-5782



학생들은 아침부터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만차버스에 올라타는 일상이 매일 아침 반복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흔한 일상이거나 또는 앞으로 나의 자녀가 겪게 될 우리 모두의 일상이었습니다.

파주시 버스정책과는 이 일상을 깨트릴 묘수로 한정면허를 찾아내었고, 학생전용이자 통학전용 노선버스를 운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작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정면허는 본래 제한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도였고, 많은 이들의 반대와 불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그 해결책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4일 운행 개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지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가며 지금의 파프리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파프리카가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길 바라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학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